

## 기후 자원, 농촌 분야에 집중해야

2017.5.23, 송도 - 녹색기후기금 워크숍에 참석한 H.R. 데이브(Dave) 인도 농업 농촌개발은행(NABARD) 부총재가 인도에서 기후대응의 기업 영웅은 수트를 입은 비즈니스 맨이 아닌 작업복을 입은 농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“인도가 기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선 농촌 민간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.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권도 농업 투자가 농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인도의 기후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. 은행이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면, 그 농민이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.”

데이브 부총재는 직접접근 인증기구 강화를 위해 3일간 열린 워크숍 첫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.

부총재는 개도국에서 기후자원 우선순위에 대해 말하면서 국가 리더십이 중요하며 민간부문이 농민의 삶에 이르기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“인도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민간 부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,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모두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.”

재생에너지 사용과 기후 스마트한 농업을 마을 수준으로 확산하는 것 등 인도의 기후 과제를 논하면서는 “시민사회 단체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, 기후 문제는 우리 사회의 DNA 일부가 되어 한다.” 고 덧붙였다.

NABARD는 농민 대출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농업 증진을 위해 1982년 설립되었으며, 그 이후 기후변화 이슈는 점차 그 비중이 높아졌다.

인도의 대표 개발 은행인 NABARD는 GCF 직접접근 기구이며, 제출한 사업도 승인을 받았다.

GCF 인증기구는 총 48개로 그 중 23개는 직접접근 기구이다. 직접접근 기구는 국가 정부의 추천을 받은 개도국 소재 조직으로 GCF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며, 해당 사업을 총괄, 감독, 관리, 모니터 한다.

“직접접근 강화 워크숍(Empowering Direct Access workshop)” 은 올해 GCF가 중점을 둔 행사로, 직접접근 기구와 함께 국가지정기구(NDA)와 능력 배양 활동 사업자를 초청하여 GCF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오늘 GCF 본부에서 시작된 본 워크숍은 GCF 파트너들이 기후자원과 관련하여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.

원문출처 = <http://www.greenclimate.fund/-/climate-finance-should-focus-on-rural-sector-says-leading-indian-lender?inheritRedirect=true&redirect=%2Fnewsroom%2Fnews>